

루마니아, 주요 산업현황 및 생산동향

<표 1>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산업현황 지표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          | 폴란드  | 헝가리  | 체코   | 루마니아 |
|----------|------|------|------|------|
| 산업생산/GDP |      |      |      |      |
| 농림수산업    | 11.0 | 3.4  | 2.7  | 9.1  |
| 광공업      | 25.1 | 31.5 | 32.6 | 34.9 |
| 서비스업     | 63.9 | 65.1 | 64.7 | 56.0 |
| 산업생산증가율  | 11.3 | 10.2 | 9.7  | 11.4 |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 1. 산업구조 및 생산동향

- 공산체제에서 중공업 전략은 금속, 엔지니어링 및 화학 산업에 특화되었으며, 소비재 및 기계 부문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1989년 직후의 경기 침체, 1990년대 중반의 적자경영 플랜트 폐쇄로 공업생산은 1999년까지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음.
- 1990년대에는 석유화학, 비료, 금속, 기계 및 시멘트 등 중공업의 생산위축으로 에너지산업의 생산도 상당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체제전환이 시작된 1989년 GDP의 57%를 차지하였던 광공업이 2006년 35%로 낮아졌으나, 주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총 수출의 70%는 EU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고,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로 고유가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공업생산은 2000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EU의 다자섬유협정(MFA) 종료로 전통적인 수출사업인 직물, 의류 및 신발산업이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의해 주되고 있는 의류산업의 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임.
- 루마니아는 대규모의 비교적 발전된 정유산업과 더불어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국가로 외국인투자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음. BP(영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원유 확인매장량은 5억 배럴로 지난 30년간 원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동부 유럽지역에서는 최대 원유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함.
  - 실제로 1976-2005년 중 원유 생산량은 294천 배럴/日에서 114천 배럴/日로 61% 감소하였는데, 그 결과 자국내 소비의 절반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 이르렀음.
  - 2004년 7월,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영석유공사인 Petrom을 원유, 가스 및 석유화학 업체인 OMV(오스트리아)에 대한 매각을 최종 승인하였음. 매각계약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간 최저 생산능력을 원유 420만 톤(생산능력: 560만 톤), 천연가스 45억 m<sup>3</sup>(생산능력: 60억 m<sup>3</sup>) 수준에서 OMV가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됨.
- 주요 자동차기업 진출현황
  - 2006년 1-5월 중 자국내 자동차 판매실적은 93,968대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산 자동차 모델의 판매실적은 46,7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지만 수입 자동차 판매실적은 47,224대로 38.8%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루마니아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의 매출비중(market share)은 전년의 39.4%에서 49.7%로 급상승하였음. 이는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엔진 모델의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대부분 수입하는 디젤엔진 자동차의 판매증가에 기인함. 이로써 디젤엔진 자동차의 매출비중은 전년의 37%에서 41%로 상승하였고 수입비중은 24%에서 51%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자국내 자동차생산 업체 중 Dacia(프랑스 Renault 자회사)가 동 기간 중

39,765대(전체의 42.3%)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우자동차 현지 법인(DAR)의 판매실적은 7.9%로 감소함. 한편, 수입 자동차 가운데 Renault(인기모델: Clio, Megane)가 자국내 판매실적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 전자·통신 산업현황

- 루마니아는 동부유럽 지역에서 IT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임.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range Romania(프랑스), Mobifon(캐나다) 등의 통신업체가 매우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
- 유선전화 시장은 2003년 1월부터 자유화되어 국영전화공사였던 Romtelecom(그리스 OTE 53% 지분보유)의 독점체제가 와해되면서 경쟁격화로 Romtelecom의 전화요금 인하 및 전화망 설치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함.
- 2004년 말 현재 유선전화는 620만 라인으로 인구 대비 28.6%로 중·동부 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루마니아 정부는 유선전화 수요증가로 인하여 향후 15년간 50만 전화라인 개설,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하여 World Bank와 EBRD의 지원으로 총 70억-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루마니아 휴대폰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면서 그 시장가치도 2004년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1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루마니아 통신업계 규제당국(ANRC)에 따르면, 2005년 말 휴대폰 가입자는 1,3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7%나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휴대폰 보급비율이 급상승하면서 그 비율은 2006년 60%, 2010년 70%로 예상됨.
- 루마니아에 진출한 휴대폰 공급업체로는 Mobifon(캐나다/영국), Orange(프랑스 Telecom 자회사), Csmorom(그리스 OTE의 COSMOTE), Telemobil 등임.
- 2005년, 영국 Vodafone은 캐나다 Telesystem International Wireless Inc로부터 Mobifon(휴대폰 통신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업체인 Connex 운영) 지분 79%를 30억 달러에 인수하여 Vodafone의 지분은 99%로 증가함.

- 케이블 TV에서도 최근 규제완화 및 자유화 조치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케이블 TV 가입자가 375만 명으로 보급률이 도시가계의 75%, 농촌지역의 15%로 동부유럽 지역 평균 보급률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인구의 3배에 달하는 프랑스의 케이블 TV 가입자 수와 비슷한 수준임.
- 한편, 루마니아 ICT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 매우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성장배경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증가 이외에도 엔지니어링과 전자산업 분야의 풍부한 양질의 숙련인력에 의해 뒷받침됨.
- 루마니아는 자격증을 보유한 IT 전문가가 6만 4천 명(소프트웨어산업: 1만 9천 명)으로 유럽에서는 최고이며, 세계 전체적으로 제6위 국가임. 인구 천명을 기준으로 한 IT 전문가 숫자도 미국과 러시아를 압도함. 매년 3만 명의 엔지니어링 분야 졸업자 중 대략 5천명이 ICT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IT 시장가치는 8.74억 달러로 이중 컴퓨터 하드웨어 63%,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서비스 26%로 각각 분류할 수 있음. PC 시장은 전년 대비 2001년 25%, 2002년 28%, 2003년 40%, 2004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소프트웨어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는 자국내 법과 제도적 측면의 장애요인과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경향으로 인한 것임. 2004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금융리스 허용 및 EU 가입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예견됨.
- 인구 천 명당 PC 보유대수는 120개로 아직 중동부 유럽지역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으나, 인터넷 가입자는 1998년의 15만 8천 명에서 2004년에는 4백만 명을 돌파하였음. 광범위한 케이블 TV 네트워크, 휴대폰 진출업체 및 컴퓨터 사용자 증가 등으로 인터넷 가입자 증가율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조사팀장 조 양 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